



4면
전주시, 해외입국자
'그물망' 관리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20년 4월 1일 수요일 (음 3월 9일) 제2507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전북도, 긴급지원금 초고속 집행

행정명령대상시설 지급률 8일 만에 85% 육박 1만3878곳 중 신청률 95.8%... 10개시군 동참

전북도가 코로나19 차단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적극적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추진한 행정명령대상시설 긴급지원금의 지급률이 방침 결정 8일 만에 85%에 육박하는 등 신속하게 집행되고 있다.

또 송하진 도지사가 각 시군도 지역 여건에 맞게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한 지원에 나설 것을 강조한 데 따라 도내 대부분의 시군도 집단감염 우려가 있는 시설과 업종에 대한 추가 지원에 속속 나서고 있다.

지난 31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행정명령대상시설 긴급지원금을 신청한 시설은 1만3,301곳이며 이 중 1만1,277곳에 70만원씩 현금 지급액 지급률은 84.8%에 이르고 있다.

도내 긴급지원금 대상시설은 모두 1만3,878곳이며 1만3,301곳이 신청해 신청률은 95.8%에 달했다.

시군별 행정명령대상시설 긴급지원금 지급 시설은 ▲전주 4,548곳 ▲군산 1,658곳 ▲익산 1,853곳 ▲정읍 708곳 ▲남원 438곳 ▲김제 506곳 ▲완주 448곳 ▲진안 104곳 ▲무주 111곳 ▲장수 86곳 ▲임실 126곳 ▲순창 135곳 ▲고창 238곳 ▲부안 258곳 등이다.

전북도는 지난 31일 각 시군도 긴급지원금 교부를 완료했으며, 각 시군은 4월 초까지 해당시설에 지급을 마칠 계획이다.

전북도뿐 아니라 각 시군도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한 긴급지원에 나서 31

일 현재 긴급지원금 지급을 결정했거나 검토하고 있는 도내 시군은 군산, 익산, 남원, 김제, 완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10곳이다.

군산시는 요가, 필라테스, 탁구장 등 450곳에 모두 3억1,500만원, 익산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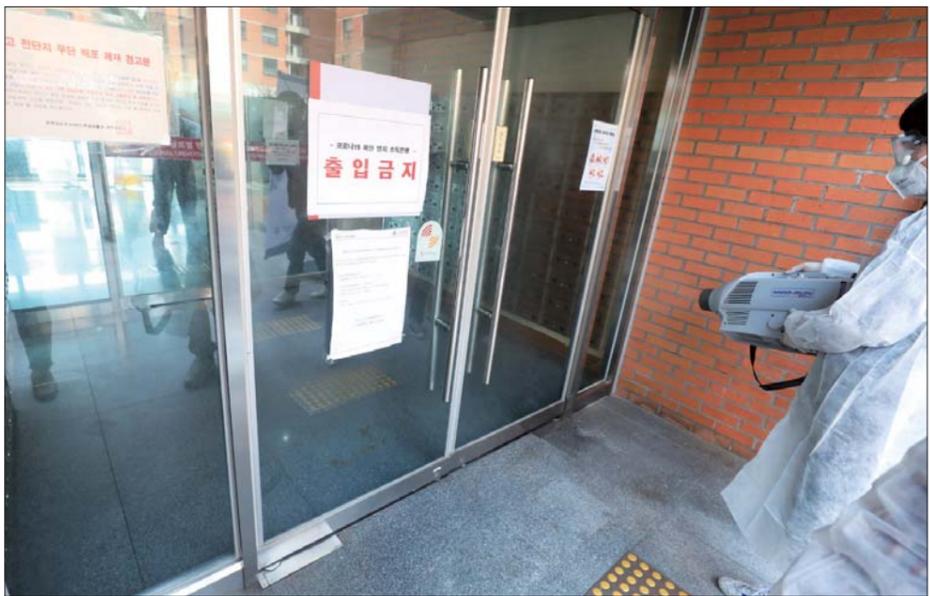
탁구장, 볼링장, 스크린골프장, 필라테스 등 168곳에 1억1,700만원, 남원시와 완주군은 각각 18곳 1,260만원, 27곳 1,900만원에 추가지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장수군은 탁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18곳에 1,260만원, 임실군은 탁구장과 스크린골프장 8곳에 560만원, 순창군은 에어로빅, 탁구장 등 13곳에 900만원, 고창군은 탁구장, 에어로빅 등 47곳에 3,300만원 지급을 결정했다.

또 김제시는 탁구장, 탁구장 등에 대한 추가지원을 검토 중이며, 부안군도 긴급지원금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미지급된 긴급지원금은 최대한 조기에 지급하면서 방역지침 준수를 적극 점검하겠다"며 "우리도에서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모든 도민이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동참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출입금지 붙은 전북대학교 기숙사

전북지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14번째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 31일 전북대학교 기숙사에서 관계자들이 확진자가 생활한 기숙사를 방역하고 있다.

대구서 온 전북대생 코로나19 확진... '전북 14번째'

군산의료원에 이송·치료

구체적인 동선 역학조사 중

대구에서 온 전북대학교 재학생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전북도내에서는 14번째다.

전북도 보건당국은 대구 수성구에

거주하는 전북대학교 재학생인 A(22·전주)씨가 코로나19 양성판정이 나와 군산의료원에 이송·치료를 받는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A씨는 20일 부친의 자가용을 이용해 전북대학교 대학기숙사로 이동했다. 도착 후 대학기숙사에 격리된 후 다음날 학교에서 제공한 버스를 타고 전북대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보건당국은 A씨가 방역 동선에서 움직였고, 이동 과정에서 마스크 착용, 대학기숙사 격리과정에서 1인실을 이용하는 등 특별한 접촉자가 없다는 판단이다.

다만, A씨가 대구에서 전주로 오는 과정에서 진안군 마이산휴게소를 이용했고, 이 과정에서 부친과 삼촌이

동승한 것으로 파악된다.

부친과 삼촌은 현재 대구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A씨와 함께 대구·경북에서 온 전북대학교 23명의 학생은 모두 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았다.

보건당국 관계자는 "A씨는 이동 과정에서 KF94 마스크를 착용했고 가족 모두 대구에서 자가격리 및 검체채취를 진행 중"이라며 "구체적인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 GPS와 카드사용 내역, CCTV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9일부터 온라인 개학 고3·중3부터 순차적

유치원은 무기한 연기... 수능일정도 2주 연기

코로나발(發) '온라인 개학'이라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오는 9일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부터 온라인 개학이 시작된다. 또한 대학수학능력시험도 2주 연기에 12월 3일 치러진다.

중·고등학교 1~2학년과 초등학교 4~6학년은 16일, 초등학교 1~3학년은 20일 각각 개학한다. 온라인 수업이 어려운 유치원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누그러질 때까지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유엔해 교육부 장관은 지난 달 31일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신학기 개학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9일부터 고3과 중3에 한해 온라인 개학을 시작한다. 일주일 후인 16일에는 중·고교 1~2학년과 초등 4~6학년이, 그리고 20일에는 초등 1~3학년이 순차적으로 개학한다.

앞서 교육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이후 개학을 세 차례 연기했다.

특히 교육부는 온라인 개학도 수업일수로 인정되며, 오는 9일 이후 각 학년별 휴업기간은 법정 수업일수와 수업시수에서 감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미 3차 개학연기 때 초·중·고교 10일간 휴업을 허용한 상태로, 초등 1~3학년은 추가로 감축할 수 있는 9일까지 꼭 채워 줄이게 됐다.

교육당국은 최근 해외입국 감염자와 소규모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등교개학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2021학년도 대학입시 일정도 2주 미뤄진다. 수시모집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작성 마감일은 8월31일에서 9월16일로 16일간,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당초 11월19일에서 12월3일로 2주 동안 연기한다.

한편 교육부는 향후 지역별 코로

나19 진행 상황과 학교 여건 등을 고려해 원격수업과 등교 출석수업 병행 등 학사운영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교육부 차관을 단장으로 한 신학기 개학 준비 추진단에 '원격교육 준비·점검팀'을 신설하고 1일부터 일주일간 원격교육 준비기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직업계고는 온라인 개학 시기에 이른 위주 수업을 진행하고 등교 이후 실습수업을 집중 실시한다.

또한 교육부는 온라인 개학 시 학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대책이 나왔다.

교육부는 지난달 27일 각 시도교육청에 원격수업 운영기준안을 배포한 바 있다.

운영기준안에는 각 학교별 여건에 따라 실시간 쌍방향수업·강의형·과제형 등 유형을 정해 운영하고 학생부·중간고사 등 평가는 등교개학이 가능해질 때 실시한다는 내용이 주로 담겼다.

또한 교육부급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시도별 스마트기기 및 인터넷 지원계획도 마련하기로 했다. 가정에 IT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농산어촌 및 도서지역의 학생들을 위해 학교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심 중이다.

시각·청각장애 학생을 위해 원격수업에 자막과 수어, 점자 등을 제공하고, 발달장애 학생에게는 다양한 형태의 원격수업과 순회교육 등 장애 유형과 정도를 고려해 지원하기로 했다.

다문화학생은 다국어 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한국어교육을 위한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한다. 대안 학교는 체험학습을 출석 수업이 재개된 후 실시하도록 했다.

특히 교육부는 전국 490개 원격교육 시범학교를 운영해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교사가 참여하는 '1만 커뮤니티'를 통해 원격수업 역량을 높이고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장은성 기자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행동수칙

자료: 질병관리본부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일반 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하지 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 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

전주매일 캠페인